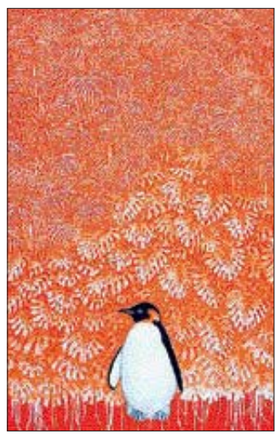
동물의 세계 통해 우리 사회 성찰

신세계갤러리 8~20일 '백화점 속 동물원'展


이용석 작 '식물원-펭귄'

광주신세계갤러리가 8~20일까지 동물의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를 성찰해 보는 '백화점 속 동물원'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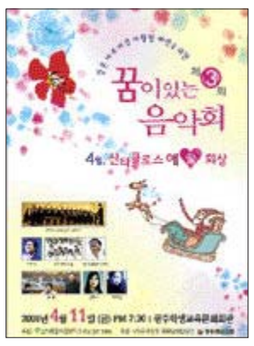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는 강용면, 김래환, 노준진, 박용식, 이용석, 이윤정, 최성철, 최용선, 최혜광씨 등 9명이 참여해 동물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한 회화, 조각,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강용면씨는 투명한 아크릴로 말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안에 조명(LED)을 설치해 빛을 내는 조각품을 출품한다. 최혜광씨는 온 몸이 붉은 기린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돌연변이를 형상화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주여성 돕는 '꿈이 있는 음악회'

11일 학생교육문화회관



결혼이주여성의 사랑방을 마련하기 위한 '제3회 꿈이 있는 음악회-4월 산타클로스 애(愛) 회상'〈사진〉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파파남 성합창단의 멋진 하모니가 어우러진 공연을 비롯해 전통악기 북과 퓨전음악이 가미된 북춤, 은은한 선율이 느껴지는 통기타 연주 등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음식, 생활, 문화 등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친목공간을 마련하는데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 및 문의 062-267-370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독자 74% "베스트셀러 목록 안 믿어"

일반인 10명 중 7명은 서점들이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비자시장조사 전문기업인 매경리서치 C-NEWS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지난달 1~15일 전국 남녀 6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0%)를 한 결과다. 5일 C-NEWS의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4.4%가 "베스트셀러 목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내 성향과 맞지 않아서'(39.6%), '특정 출판사의 마케팅 영향일 것이기 때문'(39.2%), '서점의 자의적 판단일 것이기 때문'(13.8%)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제 22회 광주연극제 (9~13일·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개막

"봄날 감동의 무대, 당신을 초대합니다"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광주연극제에는 모두 5개 극단이 참여, 경연을 펼친다. 극단 유피씨어터의 '위대한 유산' 중 한장면.

극단 DIC 등 5개팀 참여, 1팀당 2회씩 10회 경연 펼쳐

각종 할인 혜택·릴레이 관람제 도입·신용카드 결제도

지역 연극계의 대표적 축제인 제 22회 광주연극제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9일 오후 7시30분, 10~13일 오후 4시·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연극협회(회장 박규상)는 올해 처음으로 관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도입, 눈길을 끈다. 올해부터 일반 관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던 사랑티켓 제도가 소외계층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협회 측이 적극적인 자세로 관객들을 찾아 나선 것.

협회측은 이번 연극제를 시작으로 오는 6월에 열리는 소극장 축제, 가을에 열리는 평화연극제 등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

우선 이번 연극제에서는 헌혈증을 가져오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마이비 교통카드, 씨너스 전대점 영화 관람권을 제시하면 30% 할인 혜택을 준다. 또 릴레이 관람제를 도입, 연극제 관람 티켓으로 연극제에 참가한 다른 극단의 작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볼 수 있으며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용카드 결제도 시작했다.

경연 형식으로 진행되는 올해 연극제에는 극단 DIC 등 모두 5개 팀이 참가했으며 최우수상 수상팀은 오는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 26회 전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9일 첫 공연을 갖는 극단 DIC은 연극배우로도 잘 알려진 민복기씨가 쓴 '행복한 가족'을 공연한다. '행복한 가족'은 칠순을 넘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족 대여업체로 부터 '가짜 가족'을 대여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심성일씨가 연출을 맡았다.

유피씨어터의 '위대한 유산'(10일) 역시 '가족'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호남대 김균형 교수가 희곡과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개성 넘치는 네 남매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통해 가족간의 정을 되새겨 보는 뮤지컬이다.

■광주연극제 공연 작품

일정	극단	작품명
9일 (수)	DIC	행복한 가족
10일 (목)	유피씨어터	위대한 가족
11일 (금)	얼·아리	봄이 오면 산에 들에
12일 (토)	푸른연극마을	짬뽕
13일 (일)	청춘	미래는 없다

얼·아리는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11일)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최인훈의 '봄이 오면 산에 들에'를 선택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을 갖고 있는 산골마을의 달내와 아버지, 그를 좋아하는 바우가 극을 이끌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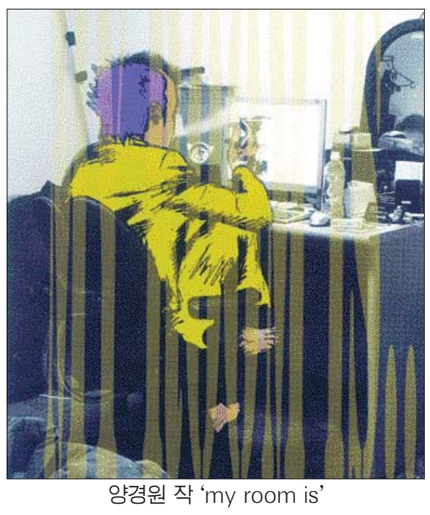
서울 대학로에서 장기간 공연돼 화제를 모은 '짬뽕'은 12일 극단 푸른연극마을에 의해 광주 무대에 오른다. 광주 5·18 민중항쟁이 '짬뽕' 한 그릇에서 시작됐다는 기발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 중국집 춘래원을 배경으로 중국집 사장, 배달원, 다방 종업원 등 4명의 평범한 시민이 역사에 어떻게 휘말려들어가는지 보여준다. 극단 대표 오성완씨가 연출을 맡았다.

극단 청춘은 이지흥 작 '미래는 없다'(13일)로 경연에 참여한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10대 소녀 살해 사건을 둘러싸고, 목격자이자 친구인 또래 소녀, 담당형사, 정신과 의사가 벌이는 심리 게임을 다루고 있다. 환상과 현실이 교차하고, 과거와 현재가 얽힌 작품으로 연출은 원광연씨가 맡았다. 티켓 가격 일반·대학생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대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다양한 철학

지산갤러리 17일까지 'A군의 서커스'展


양경원 작 'my room is'

어릿광대들이 눈물로 빚어낸 서커스 같은 전시회가 열린다. 지산갤러리는 17일까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백상옥, 양경원, 이인성, 조강수씨 등 4명을 초대해 'A군의 서커스'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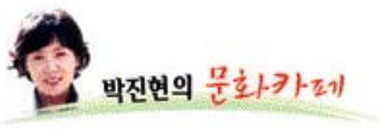
조각, 판화, 서양화, 한국화를 각각 전공하는 이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20대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다양한 철학을 표현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호명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상징하는 'A'는 도전과 좌절, 꿈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20대(작가들)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서커스라는 공간은 화려한 의상과 무대에 가려진 피에로의 순수와 눈물을 의미한다.

백상옥씨는 석고 얼굴상을 중심으로 정육면체의 상자를 어지럽게 배치한 조각작품을 전시하며, 양경원씨는 골방에 틀어박혀 인터넷에 빠져 사는 젊은이들의 초상을 그린 판화 미디어를 선보인다.

또 이인성씨는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군중들 앞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는 인물을 담은 서양화를, 조강수씨는 궂은 날에 잠깐 나왔다가 숨어버리는 '여우별'을 형상화한 동양화를 각각 내놨다. 문의 062-222-250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의 '오덴세'를 꿈꾸며

서울 청량리 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2시간쯤 가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간이역에 닿는다. '김유정역'(金裕貞驛·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이다. 지난 2004년 이 지역 출신 소설가 김유정(10908~1937)을 기념하기 위해 역명을 신남역에서 김유정역으로 바꿨다. 사람이름을 딴 역으로는 국내 최초이다.

최근 김유정역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천명의 인파로 북적였다.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김유정 문학촌'에서 열린 '봄·봄 스토리 페스티벌'(이하 봄봄 페스티벌) 때문이었다. 봄봄 페스티벌은 김유정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71주기 추모제, 학술발표회, 동아시아 대표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짜여져 있다.

봄봄페스티벌의 메인무대는 김유정 문학촌. 김유정의 출생지이자 소설 '봄봄'의 배경인 실레마을에 조성된 문학촌은 생가와 기념전시관, 공원 등으로 꾸며져 있다. '향토문화의 세계화'를 내건 춘천시는 문학촌을 춘천의 관광명소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향수'의 시인 정지용을 배출한 충북 옥천군은 아예 '문학기행 1번지'를 자처하고 나섰다.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 각각 30리(12km)를 문화관광벨트로 잇는 '향수 30리 사업'를 2010년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문인들의 삶과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작가들의 출생지나 이들의 작품 속에 등장한 지역 명소를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일명 '문학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경남 통영시는 지난달 '꽃'의 시인 김춘수 기념관을 개관한 데 이어 '토지' 작가 박경리 문학관을 2010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박경리 문학관이 개관되면 시인 김춘수 기념관과 연계해 대규모 문학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김동리·박목월·조지훈·이육사 문학관을 하나로 묶은 '문학테마 여행상품'을 개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이처럼 다른 지역들이 문학마케팅에 팔을 걷고 나선 것과 달리 이 지역은 느긋하다. 고 김현승· 박용철, 황석영, 김지하, 조정래, 이청준 등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문향(文鄕)'이지만 이들을 위한 변변한 문학관 하나 없다. 이렇다 보니 문학관과 인근 명소들을 잇는 관광상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문학관은 단순히 한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 아니다. 예술가로서의 삶과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문학관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 모으는, 흡인력 강한 관광자원이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를 배출한 영국의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과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고향인 덴마크의 오덴세는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시인을 배출한 광주 양림동이 '한국의 오덴세'가 될 날은 언제쯤일까?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